

# 전기료·건보료 연체 가산금리 너무 높다

통신비,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일상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생활요금의 연체 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고 일부는 대부분 연체 금리를 뺀다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최고 월 9%에 이르는 연체금을 받고 있다. 이를 금리로 환산할 경우 연 108%에 이른다. 우리나라 대부업체 최고금리(27.9%)보다 무려 10배나 높은 287.1%에 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주로 일반 서민들이 타깃이 되는 생활요금 연체 금리와 달리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연체 금리는 이와는 전혀 판판이다

법인세의 경우 신고일이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미납일 하루 마다 0.0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된다. 이를 월 금리로 환산하면 0.9%, 연 금리로 보면 10.95%다

힘센 기업에는 관대하지만, 돈 없고 배경 없는 일반 서민에게는 가혹한 연체 금리의 실상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셈이다. 때문에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 건보료 경우 월 9%로 연금리 환산시 108%

### 소득수준이나 생활형편 전혀 고려하지 않아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SKT·KT·LG U 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가 연체요금에 대해 2%의 가산금을 받고 있다. 가산금은 이동통신 3사가 모두 같은 수준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월 요금을 연체했을 경우 3월에 1월 통신요금에 대해 2%의 연체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이는 1만 원에 2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정최고금리로 1만 원을 빌리면 이자만 월 233원을 내게 된다. 통신요금과 33원 차이다.

이는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를 적용한 경우다. 법정최고금리를 월 금리로 보면 2.325%다. 전화요금 연체 가산금리와 0.33%p차이에 불과하다.

연체금리는 전기요금이 통신요금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은 미납된 전기요금에 대해 월 1.5%의 연체료를 최대 2개월(1개월 1.5%, 2개월 3.0%)간 적용하

고 있다. 한전은 실제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계산해 부과한다.

모바일 소액결제 연체금리의 경우 상황은 더 심하다.

다날이나 모빌리언스 등이 대행하는 모바일 소액결제 연체금리는 월 3~5%로 통신요금 연체 가산금리보다 높다. 이를 연으로 환산할 경우 최고 60% 수준이다.

소액결제 연체 관계자는 "최초 연체금에 대해 월 4%의 가산금이 청구된 이후 다시 1%가 더해져 5%가 된다"며 "두 차례에 걸쳐 연체금을 받고 이후에는 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긴다"고 말했다.

연체금리의 단연 최고봉은 건강보험료다. 다른 것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최고 월 9%의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를 못 내면 3%의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다음 달도 연체됐을 경우 1%p씩 추가된다. 연체 첫 달은 3%, 둘째 달은

4%, 셋째 달 5%로 증가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씩 더해져서 최고 9%가 적용된다"며 "7개월 이후부터는 매달 9%의 가산금이 붙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들 연체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소득수준이나 생활형편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대부분 연체와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무차별 부과한다는 점이다.

대부업체는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8·9·10등급 저신용자들에게 27.9%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신용도가 좋으면 금리를 더 내려준다. 하지만 연체 가산금리에 이런 것이 있을지 없다.

또 일괄 부과 못지 않게 기업에 적용되는 연체 법인세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연체금리를 부과하는 해당 기관 관계자는 "연체금리는 연 금리로 볼 문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내야 할 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라고 주장했다.

/인진수기자



LG전자, 31일 프리미엄 스마트폰 'G5' 판매

LG전자는 31일 프리미엄 스마트폰 'G5'를 출시한다. LG전자는 지난 18일 G5의 국내 출시 시점을 이달 31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G5 초기 구매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LG전자는 4월15일까지 G5 구매고객 전원에게 카메라 그립 모듈 '캠 플러스'(9만9000원)와 배터리팩(3만9000원)을 증정한다. 사용자는 배터리와 배터리 충전 거치대 각각 1개로 구성된 배터리팩을 통해 배터리 걱정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5월31일까지 B&O 패키지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B&O 패키지는 고품질 오디오 모듈 '하이파이 플러스'(Hi-Fi Plus with B&O PLAY·18만9000원)와 프리미엄 이어폰 'HB by B&O HAY'(27만9000원)로 행사기간동안 약 38% 할인된 28만9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LG전자는 G5에 디바이스끼리 결합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모듈 방식(Modular Type) 디자인을 채택해 하드웨어간 결합의 시대를 열었다. G5와 연결할 수 있는 LG 프렌즈는 캠 플러스 하이파이 플러스 HB by B&O HAY, 360 VR, 360 캠, 롤링봇, 톤 플러스(HBS-1100) 등이다. /인진수기자

## 현금 사용량 계속 줄어

### 10명 중 8명은 카드·포인트·모바일로 결제

일상 생활에서 현금이 사라지고 있다. 국내에서 순수하게 소비에 쓰인 지출 비용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 해에는 전체의 20% 수준까지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열 명중 여덟은 현금을 안쓴다는 말과도 통한다.

20일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민간 최종 소비 지출에서 카드 승인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집계를 시작한 2004년부터 11년 넘게 증가해 왔다.

민간 최종 소비지출 대비 카드승인 금액 비중은 2004년 36.9%에 불과했지만 지난 2008년 52.0%를 기록하면서 절반을 넘어섰고, 확대 추세를 이어가면서 2014년에는 77.3%에 이르렀다.

이 기간 민간최종 소비 지출 금액은 66.43%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카드 승인 금액은 251.92%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카드 승인 금액도 전년 대비 10.06% 늘어난 636조8100억원을 기록. 국내에서 이뤄진 전체 민간 소비에서 카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많게는 80%에 가까워질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금융연구소 관계자는 "화폐 실물을 발행해서 결제하는 것은 어느 나

라를 봐도 줄어든다"며 "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현금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카드나 포인트 등이 일상화되면서 현금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술 발달로 카드조차 모바일 환경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지갑조차 없이 다니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해 어음과 수표를 제외하고,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이뤄진 결제 금액은 하루 평균 325조원으로 전년 대비 12.10% 증가했다.

지갑 속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온라인 또는 모바일 카드 등을 이용하는 문화가 확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고 있는 신모(30)씨는 "현금은 물론 카드도 잘 들고 다니지 않는다"며 "가끔은 지갑을 집에 놓고 나가더라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관련 소비가 수요도 늘었다"며 "기술도 발전하고 편의성이 크다는 면에서 실물카드보다 모바일을 이용하는 고객 증가세도 빨라지고 있다"고 했다. /인진수기자



## 현대차,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출시

현대차가 친환경차 전용 모델인 아이오닉(IONIQ)의 두 번째 차종인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electric)'을 출시한다.

현대자동차(<http://www.hyundai.com/>)는 18일(금) 제주도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6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에서 객진 부사장 및 회사 관계자와 기자단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출시를 알렸다.

현대차 국내영업본부장인 객진 부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단 한번의 충전으로 제주 일주도를 거의 완주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 모든 전기차 중 가장 긴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에 대한 고객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

고 말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지난 1월 출시한 현대차의 친환경차 전용 모델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에 이은 두 번째 차종으로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움직여 주행 중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차며 최대 출력 88kW(120ps), 최대 토크 295Nm(30kgm) 모터를 적용한 동급 최고 수준의 동력 성능을 보이는 고속 전기차다. 특히 1회 충전 주행거리 180km는 국내 전기차 중 최장 거리로 ▲효율 전기차 시스템 탑재 ▲알루미늄 소재 적용 등 차량 경량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에어로 다이내믹 디자인 등을 통해 구현됐다.

/연주=이종복기자

## ISA 첫주, 누적 가입 65만명·금액 3200억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다섯째인 18일 7만여 명이 신규로 가입했다.

20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8일 추가 가입자 수는 7만 1759명, 누적 가입자 수는 65만8040명이었다.

누적 가입금액은 320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권 별로 보면 은행의 가입자 수가 61만7215명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고 증권사는 4만643명, 보험사는 182명으로 나타났다. 가입금액은 은행이 1984억원으로 전체 가입금액의 62%가 은행으로 몰렸다. 증권사는 1218억6000만원으로 38%를 차지했다. 상품 유형별로는 신탁형과 일임형에 각각 3146억원, 58억원이 몰렸다.

일임형은 ISA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운용을 전적으로 금융사에 맡기는 상품으로 현재 증권사만 판매 가능하다. 은행들은 오는 4월부터 투자일임업 등록을 마친 뒤 일임형 ISA를 출시할 수 있다. /인진수기자

## 삼성 PC, 국내시장 점유율 22년 연속 1위

삼성전자는 22년 연속 국내 PC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국내 PC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트북 시장에서 50.7%의 시장점유율을 올렸다. 2위 LG전자와는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2016년형 '삼성 노트북 9 메탈'을 출시한 후 약 두 달만에 누적 판매량 10만대를 돌파했다. '삼성 노트북 9 메탈'은 '빅 충전' 기능에 180도까지 펼쳐지는 힌지와 화면 회전이 가능한 컨설팅 모드 등의 강점을 갖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진수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